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이주호 엮음

2006년 3월

KTUG

## 일러두기

-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한겨레신문을 창간하고 초대 발행인 겸 인쇄인을 지낸 청암 송건호 선생이 임종국, 백기완, 임헌영 등 여러 학자들과 지은 책 이름입니다. 한길사에서는 1979년 10월 15일 제1권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10년간 모두 여섯 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은 발간된 이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근현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로 널리 읽혀 한국 진보학계와 젊은세대의 역사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당시 10·26 군사정변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종국 선생의 글 ‘친일파와 친일행위의 실태’ 등을 이유로 문화공보부에서 강제 압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2004년 5월 28일, ‘책에도 생명·인권 있어... 500여권 돌려달라’)
- 25년이 지난 2006년 2월,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출간 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되었습니다. 편집을 맡은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인 ‘민족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역사 인식이 ‘우리 역사에 끼친 피해’가 작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료를 바탕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해보자는 의도에서 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2006년 2월 9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 역사 다시 썼다)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발간 후, 각종 언론에서 쏟아져 나온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옹호 내지는 비판의 글을 모아 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시간 순으로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Copyright © 2006, 이주호

KTUG, Korean TeX Users Group

## 차 례

1	영면한 송건호선생 발자취... 운동가·언론인·학자로 올곧은 삶 .....	1
2	송건호 1주기 앞두고 전집 출간 .....	2
3	[뉴 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4) 소장 학자들도 나섰다	4
4	[2005년을 빛낼 인물] (2) 한국현대사 재해석 서울대 박 지향 교수 .....	7
5	[2005 문화전망] (5· 끝 학술) 민족주의냐, 탈민족주의냐.	9
6	‘성공’과 ‘통합’의 현대사 .....	12
7	[광복 60주년 기획] ‘제3의 인식’으로 본 해방전후사 ...	14
8	▼ ‘제3의 인식’ 어떤 연구성과 있나 ▼ .....	19
9	[뉴 파워그룹 그들이 온다] (5) 담론 그룹 .....	21
10	뉴라이트 관 《해전사》 나온다 .....	26
11	출간도 되기 전 ‘뉴라이트’ 논쟁 .....	29
12	“좌우이념 떠나 실증적으로 접근” .....	31
13	《해전사》 전면비판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	33
14	[사설] ‘해방 前後史의 인식’의 再인식 .....	36
15	[사설] 해방전후사 ‘再認識의 필요성 .....	38
16	[사설] 해방전후사 재조명을 환영한다 .....	39
17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우파적 사관 대변 논란 .....	41

18	[포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사상전쟁 .....	42
19	[바로잡습니다] 2월 1일자 1면 ‘뉴라이트판(版)···’ 기사	45
20	《해전사》 겨냥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	45
21	대통령의 피를 거꾸로 솟게한 역사—① .....	48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해전사 좌편향에 반기··· 역사 다시 쓰기 .....	52
23	“解前史는 편향”··· 이념논쟁 부를 듯 .....	58
24	● 해전사란··· .....	62
25	‘解前史’ 맞선 《재인식》 출간...출판계 좌.우 논쟁 .....	63
26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 역사 다시 썼다.....	67
27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편향된 역사접근’ 바 로잡기 .....	70
28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해방전후사의 인식》 과 다른점 .....	74
29	뉴라이트판 《해전사》 나왔다.....	78
30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	80

찾아보기	85
------	----



## 1. 영면한 송건호선생 발자취… 운동가·언론인·학자로 올곧은 삶

21일 타계한 송건호 선생은 비뚤어진 시대에 투쟁하며 어렵게 일생을 살았지만 ‘언론의 사표’ ‘해직기자의 대부’ ‘민족지성’ 등의 영광스런 이름으로 불릴만큼 올곧은 삶의 지표를 보여준 지성인이다.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정보기관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과킨슨병을 앓아온 그는 97년 이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투병생활을 해왔다.

서울대 법대 재학중인 1953년 대한통신을 시작으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고인은 자유신문 외신부장, 한국일보 논설위원,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선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다가 75년 동아일보 기자 150여명이 강제해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는 재야 언론인으로서 한층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84년 해직 언론인들을 규합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했고, 월간지 ‘말’을 창간해 제도권 언론이 하지 못하던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주도해 88년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학자로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가 신진 학자들과 함께 저술한 《해방전후사의 인식》(78년)은 아직도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드골평전’ ‘한국지식인론’ ‘민족지성의 탐구’ ‘단절시대의 가교’ ‘한국현대사론’ ‘서재필과 이승만’ ‘한국현대인물사론’ ‘의열단’ ‘해방 40년의 재인식’ ‘한국현대언론사’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등 그의 저서들은 투철한 민족지성과 왕성한 필력을 증명해준다.

고인은 이같은 공로로 금관문화훈장, 한국언론학회언론상, 호암언론상, 심산상, 정일형 자유민주상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순씨(71)와 준용씨(41) 등 2남4녀가 있다. 장례는 24일 오전 8시 사회

장으로 치러지며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된다. 빈소는 서울중앙병원 (02-3010-2400). 정부는 고 송건호선생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남도영

국민일보 2001년 12월 22일

## 2. 송건호 1주기 앞두고 전집 출간

근현대사 연구 70년대 큰 반향

언론인 청암(靑巖) 송건호(宋建鎬) 선생의 1주기를 앞두고 ‘송건호 전집’(전20권 한길사 발행)이 나온다.

고인은 암울했던 독재시절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실천적 지식인이자, 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전집은 통일 분야(1,2권) 한국현대사와 현실정치 분야(3~7권) 언론 분야(8~10권) 저술과 지식 인론·인물론(11~15권) 칼럼모음집(16,17권) 에세이집(18,19권) 동양고사집(20권) 등으로구성돼 있다.

전집 간행은 청암언론문화재단(이사장 강만길)이 한국언론재단과 한길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했다. 강만길 이사장,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언호 한길사 대표, 백낙청 서울대 교수, 한승헌 전 감사원장, 언론인 성유보씨 등이 간행위원으로 참여했다.

고인은 서중석 성균관대 역사학과 교수와의 대담(1992년)에서 굴곡진 현대사를 연구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어느 출판사에서 학생운동을 써달라고 해요. 그런데 해방 후의 자료는 없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알아봤더니 근·현대역사는 사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기피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알아보니 이승만이 친일파를 감싼 것과 관련이 있

더군요.” 그렇게해서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공저)을 비롯해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 ‘한국현대사론’ ‘해방 40년의 재인식’ ‘한국지식인론’ ‘민족지성의 탐구’ 등은 1970, 80년대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기자시절에는 친구가 와도 찾값이 없어 다방에도 못 갈 정도로 청렴했으며 해직 후 에는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대학 시간강사 자리마저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0여 차례나 정권의 ‘자리’ 제의를 모두거절했던 옹골찬 지식인이었다.

53년 대한통신사 기자로 출발해 한국일보 외신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경향신문,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고인은 75년 동아일보 광고사태 및 기자해임에 항의해 편집국장직을 사임한 뒤 월간 ‘말’지 발행인, 한겨레신문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고문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해 12월21일 타계했다.

청암언론문화재단은 다음달 6일 전집을 출간하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과 함께 전집출간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영화

한국일보 2002년 11월 27일

### 3. [뉴 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4) 소장 학자들도 나섰다

권재현 · 민동용

동아일보 2004년 11월 11일

중도·보수계열의 학자들은 그동안 집단적으로 사회현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 왔다. 주로 저술활동이나 신문칼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현실에 대해 발언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이런 개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메아리 없이 묻히자 ‘개인플레이’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화 시도에 나섰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좌(左)편향’을 바로잡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뉴 라이트’라 할 만하다. 특히 소장학자들이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뉴 라이트 활동에 나선 학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활동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 ▽자유주의를 수원지로

뉴 라이트의 집단적 목소리를 결집하는 최대의 이론적 수원지(水源地)는 자유주의다.

과거 진보성향에서 개혁적 보수로 전향한 386세대의 학자와 전문가 60여명은 23일 ‘자유주의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정치적으로든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이 과거 1960, 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화당으로 전향한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점에 비춰 보면 자유주의연대 참가자들은 유사한 행로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교수협의회’(가칭) 설립 움직임도 있다. 자유교수협의회는 진보성향 교수들의 모임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 대응하는 의도로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의 발기안을 낸 조성환(曹成煥) 경기대 교수는 “현재 전국 20여개 대학의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이 모여 논의 중”이라면서 “참여 교수들의 성향이 다양해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지만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식 좌편향 인식 극복 시도

1980년대의 좌파적 민족주의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박지향(朴枝香·서양사) 이영훈(李榮薰·경제사), 연세대 김철(金哲·국문학), 성신여대 김영호(金映浩·국제정치학) 교수 등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이 대학생들에게 낡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가제) 출간을 준비 중이다.

자유주의연대에서 준비 중인 ‘신(新) 북한 바로알기 운동’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유주의연대 발기인들은 1980년대 말 대학가를 휩쓴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냉전시대 ‘북한 때리기’의 시각을 넘어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슬로건과는 달리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만 너무 부각시켜 북한의 현실을 장밋빛으로 치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독재체제가 낳은 끔찍한 인권침해와 경제난 등 북한의 잿빛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도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3월 출범한 사단법인 ‘옳은 생각’(이

사장 서승환·徐昇煥 연세대 교수)은 인터넷사이트([www.r-thinking.org](http://www.r-thinking.org))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글들을 초중고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옳은 생각’에는 경제 정치 사회학 분야 70여명이 자문교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기우는 편향성을 바꾸기 위한 대국민 계몽 활동에 나선 기존단체들도 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안민정책포럼’(회장 장오현·張五鉉 동국대 교수)은 올해 들어 정치 법률 철학 외교안보 경제 근대사 등 학계 각 분야에서 편향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규모 청소년강좌를 실시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도 현재의 근현대사 교육이 한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역사강좌에 열의를 쏟고 있다.

대학총장이나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중도와 보수성향 학자들이 주축인 한국미래학회(회장 김형국·金炯國 서울대 교수)는 최근 회원 연령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하고 ‘2030 한국사회 변화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돼 균형 잡힌 시각에서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 4. [2005년을 빛낸 인물] (2) 한국현대사 재해석 서울대 박지향 교수

민동용

동아일보 2005년 1월 4일

1980년대 대학생들에게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교양 필독서였다. 《해전사》라고 불린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한국현대사가 초중고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해전사를 탐독한 386세대 정치인들은 그 책의 인식 틀을 바탕으로 요즘 과거사 규명과 청산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해전사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뒤집는 논문들이 쏟아졌다. 다만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테면, 지주에게만 이로웠다고 평가받던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 사실은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나은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고, 이광수나 서정주의 작품을 친일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 연구도 나왔다.

박지향(朴枝香·52·서양사학) 서울대 교수는 해전사가 과연 객관적 역사서술인지 오래전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다. 박 교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전사의 《재인식》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의문을 학문적으로 풀기 위해서였다.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들과 팀을 이뤄 1930~50년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학 사회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해석을 더한 논문들을 모아 4월 초 3권의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책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우리 책의 의도는 좌우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보는 시각이나 학문적 성과들이 사실과 동떨어졌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절대 우익 이데올로기의 대변도 아니고 좌익 비판도 아닙니다.”

박 교수는 영국 근대사를 전공했지만 신문 칼럼 등을 통해 한국 현대사와 사회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 왔다. 2003년에는 19세기 후반 영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과 일본의 근대를 냉정하게 비교한 ‘일그러진 근대’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을 못마땅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는 단호하다. 자신은 서양사학자도, 영국사학자도 아닌 ‘역사학자’라는 것이다.

“역사는 일직선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힘들이 작용하는 알기 힘든 현상이에요. 그런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입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는 지난해 영국의 저명한 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의 저서 ‘만들어진 전통’을 장문석 박사(서울대 강사)와 함께 번역했고, 한 학회에서 ‘국사의 해체’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가 역사의 주도세력이자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지요.”

그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왜 개인이나 인류라는 개념보다 민족이 압도적이고 절대적 가치가 돼야 하느냐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가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행태의 이면에는 역사 피해의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진단한다.



그림 1: 박지향 서울대 교수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남에게 미루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정작 우리의 책임은 없어지고, 결국 역사에서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박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중요한 시기인 1960, 70년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해석에 대한 박 교수의 도전은 2005년에도 계속된다.

## 5. [2005 문화전망] (5· 끝 학술) 민족주의나, 탈민족주의나

김범수

한국일보 2005년 1월 14일

올해 학계 최대의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역사’와 ‘민족’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껏 달아올랐다가 잠시 수그러들었던 민족감정은 올해 일본 우익의 역사교과서문제로 재점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해지는 한편에서, 탈민족·탈근대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 100주년인면서 광복 60주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 체결 40주년이다. 이에 맞춰 여러 학회, 연구소들이 한일 과거사를 되돌아보는 학술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광복 60년 등 맞아 국제학술회의 잇달아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센터와 함께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한국 병합의 역사적·국제법적 재검토’를 주제로 한·미·일 공동학술회의를 연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도 2월 18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을사늑약, 그 100년의 기억’를 주제로 을사조약 100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연구소는 또 8월 11, 12일에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현지 학자들을 통해 직접 듣는 자리여서 이집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해외 학자들이 다수 참여한다. 역사학회가 주도하고 국내 역사학 관련 학회들이 대거 참가해 5월에 여는 전국역사학대회의 올해 주제도 ‘을사조약’. 대회에서 한국사 연구회는 분과 주제로 ‘1965년 한일회담의 성격’을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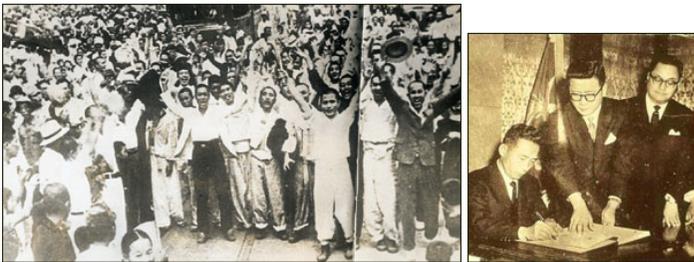


그림 2: 광복 직후 거리에 나와 환호하는 군중들과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국사편찬위원회가 8월 15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여는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학술대회는 북한과 재중동포학자들이 참가해 의미가 깊다.

동북아지역의 반일 공동투쟁과 광복의 의미, 일본 패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재조명한다. 국사편찬위는 또 10월에 역사 관련학회들과 함께 광복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작업이다. 이밖에 한국일본학회, 현대일본학회, 한일관계사학회 등이 한일 수교나 한일관계 재정립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중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을 둘러싼 한·중 갈등은 지난해 ‘열전’에서 올해는 ‘냉전’의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처음으로 고구려 관련 학술대회를 연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연다.

고구려연구회는 11월 말에 칭화(淸華)대 한중역사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일 3국 학자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세계 속의 고구려와 발해’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고구려연구실장과 발해연구실장도 초청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 “적대적 민족주의 깨야” 목소리 높아질듯

민족주의가 거세질수록 탈민족을 부르짖는 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실을 존중하고, 자민족이나 자국중심주의이라는 편협한 사고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귀 기울일만하다.

‘역사 해체’ ‘탈국경’ 등을 주장하며 화제를 모아온 한양대 임지현 교수는 4월 23, 24일 한양대에서 ‘과거사 짚어보기(Mastering Past)’를 주제로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과 남북한 친일파 청산의 담론을 비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경제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제의 한국 근대화 기여에 무게를 실어온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0월쯤 미국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알리는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통해 해방 이후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자는 뜻으로 진행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간행 작업도 주목할만하다. 서울대 박지향(서양사학) 이영훈(경제학) 교수 등이 주도하는 이 작업은 1980년대 이후 대학생 필독서로 자리잡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교정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어 현대사는 물론 정치·경제학계에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임지현 교수는 “올해도 전통적인 민족주의 흐름이 강화돼 한·중·일 3국에서 적대적인 민족주의가 증폭되겠지만, 이런 구도를 무너뜨리려는 각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연대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6. ‘성공’과 ‘통합’의 현대사

이선민

조선일보 2005년 1월 27일

드디어 한국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시작됐다. 25일 창립 행사를 가진 ‘교과서포럼’은 직접적으로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지만, 그 발족이 갖는 의미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 교육과 교양서, 언론 등을 통해 국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현대사 인식의 본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던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몇 차례 고교 현대사 교육의 좌(左)편향이 지적된 적은 있지만, 학계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도 40~50대 보수·우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현대사의 좌편향적 해석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국현대사 강좌’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가제) 등이 잇달아 출간될 예정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핵심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중있는 학자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들이 밝히는 새로운 한국현대사 서술의 방향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부정적으로 보는 좌편향적 서술이 안고 있는 사실의 오류와 의도적 누락,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는 관점의 협소함, 남북한 평가의 이중 잣대 등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룩한 ‘국력(國力)의 신장’ ‘삶의 질의 향상’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확산’을 강조하는 대안적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 목표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실패파’의 한국현대사 해석을 허물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성공파’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현대사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좌편향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있다.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은 1980년대 초반의 연구 결과를, 그것도 한쪽 성향의 것만을 담고 있다. 이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지식과 역사 인식이 20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 이후 국내외에서 나온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과 세계사적인 인목, 학자적인 균형감각에 따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시 쓰

여지는 한국현대사는 ‘성공’과 함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좌편향적 서술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사 해석을 거꾸로 뒤집는 우(右)편향적 서술이 해당될 수는 없다. 한국현대사는 분명 ‘성공의 역사’이지만, 분단·전쟁·냉전으로 이어지는 악조건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치유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피해자와 탈락자를 끌어안는 보다 성숙한 역사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성공의 역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좌편향적 현대사 해석이 위력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그늘’과 ‘부채’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기회에 실력있고 양식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국민 모두가 자손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한국현대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7. [광복 60주년 기획]·제3의 인식'으로 본 해방전후사

이광표

동아일보 2005년 8월 11일

《우리의 해방전후사(解放前後史)는 과연 불임(不妊)의 시기였는가. 광복에서 6·25전쟁에 이르는 이 시기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전쟁, 가난 등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 시기를 놓고 좌우로 편향된 시각과 평가가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깊게 해온게 사실이다. 1970년대까지는 우파적 시각에서, 1980년대에는 좌파적 시각에서 해방전후사를 주로 평가했다. 그러나 광복60주년을 맞아 해방전후사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객관적

이었는지, 편견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새롭고 건강한 시각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제 3의 시각'에서 해방전후사를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새롭게 평가되는 해방전후사

해방전후사 평가에 있어 주요 테마는 분단의 책임 소재, 농지 개혁에 대한 평가, 6·25전쟁의 기원과 책임 문제, 이승만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이런 주제들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우파적인 시각(전통주의)이 득세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 아래서는 해방전후사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관변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우파의 시각을 뒤집는 견해들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6·25전쟁의 책임이 소련과 북한에 있기 보다는 미국과 남한에 더 많이 있다는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의 이론이 소개되면서 좌파적 시각(수정주의)이 세력을 얻어갔다. 그 결과 해방전후사 및 현대사는 반(反)민중 반민족 반민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라는 시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부터 기존의 우파적, 좌파적 견해 모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그같은 자성이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방전후사를 바라보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면서 '해방전후사에 대한 재인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상인(全相仁·사회학) 한림대학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우편향, 1980년대의 좌편향을 경험한 한국 사회가 이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있고 종합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방전후사를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다시 평가되는 쟁점들

▽분단 책임 문제

좌파는 남측(이승만)과 미국에 분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광복 직후, 좌익과 중도파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미국이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해 분단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반면 우파는 광복 직후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하고 곧이어 북한5도를 관할하는 '북조선 제(諸) 행정국'을 만드는 등 북측(김일성)과 소련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을 초래했다고 반박한다. 우파의 주장은 소련의 비밀문서 등으로 입증됐다. 1948년의 남북협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공산당의 결정과 지령에 충실한 김일성 세력의 주도 아래 추진됐음도 소련의 자료로 입증됐다.

최근 들어서는 당시의 국제정치 역학관계속에서 양측의 책임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일영(金一榮·정치학)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뒤 남진통일 북진통일을 추진했던 2단계 통일론자였다는 점에서 등가(等價)인 셈”이라면서 “당시의 엄혹했던 국제적 냉전질서와 국내의 좌우 대립 속에서 중간파의 통일정부 추진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였다”고 평가했다. 즉 단독정부는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는 말이다. 이는 민족 민주 통일이라는 도덕적 명분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당시의 냉전 현실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측의 농지 개혁에 대한 평가

이승만 정권은 1949년 농민들에게 농지를 배분하는 농지개혁을 시행했

다. 이에 대해 좌파는 농지를 나눠줬지만 6·25전쟁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며 농민을 또다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우파는 농민들에게 삶의 토대를 제공한 개혁이라고 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농지개혁을 '건국(建國)과 부국(富國)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최근 제기됐다. 농지개혁이 농민들에게 땅을 제공해 한국인이라는 국가적 소속감(또는 정체성)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다.

김일영 교수는 “농지 배분을 통해 지주계급을 몰락시켰기 때문에 1960년대 지주 계급의 저항 없이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6·25 전쟁의 책임 문제

1980년대 성행했던 북침설이나 남침 유도설 또는 내란설은 그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중국의 남침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수정주의 시각의 근거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엔 6·25 전쟁에 대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하나가 6·25 전쟁이 남한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끼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다. 전쟁을 통해 남한 국민의 통합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같은 시각은 냉전시대가 종식되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그같은 정체성(통합 의식)을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전쟁을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귀옥(金貴玉·사회학) 한성대 교수는 “분단과 전쟁은 정치적 거시적 시각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보통 사람들의 전쟁 경험을 통해 미시사적 생활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올로기를 넘어-불임(不妊)이 아니라 맹아(萌芽)의 시기

해방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 현대사를 좌우 이데올로기의 시각을 뛰어 넘어 객관적 사료를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과거 독재정권하의 우파적 시각이나 1980년대 이후 좌파의 시각 모두 정치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갇혀 인간을 외면해 버렸다는 자성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해방전후사에 대한 재평가는 이 시기를 암흑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이어진다. 김영호(金暎浩·국제정치학) 성신여대 교수는 “80년대의 좌파식 견해는 자칫 한국의 해방전후사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화를 거쳐 자유주의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지는 해방전후사 재인식 작업에 대한 반론도 있다. 박태균(朴泰均·한국사) 서울대 교수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그같은 연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실제론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데다 너무 결과를 놓고 과거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결과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 교수는 또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만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막아낼 논리가 사라질 것”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영 교수는 “역사 평가에 있어 현실적인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해방전후사의 명암을 제대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덧붙였다.

“해방전후사는 분명 암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오로지 불임의 시기는 아니었다. 해방전후사엔 1960년대로 이어지는 맹아(萌芽)의 측면도 있었다.”

## 8. ▼‘제3의 인식’ 어떤 연구성과 있나▼

이광표

동아일보 2005년 8월 11일

해방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당시 저작물로는 유영익(柳永益·역사학) 연세대 석좌교수 등이 펴낸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이승만 연구’(이상 연세대 현대한국학 연구소), 전상인 한림대 교수의 ‘고개 숙인 수정주의’(전통과 현대)를 들 수 있다. 전 교수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특히 서울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말엔 차상철(역사학) 충남대 교수의 ‘한미동맹 50년’,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의 ‘건국과 부국’(이상 생각의 나무) 등이 나왔다. 김 교수는 단독정부 수립과 6·25전쟁 등을 국가 형성과 경제 성장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달 말 출간 예정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푸른 역사)도 눈길을 끈다. 1980년대 386세대를 사로잡았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한길사)가 좌편향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책. 박지향(朴枝香·서양사) 이영훈(李榮薰·경제학) 서울대 교수, 김철(金哲·국문학) 연세대 교수, 이정식(李庭植·정치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김남영(경제학) 동국대 교수, 카터 에커트(정치학)

20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미 하버드대 교수, 차상철, 김일영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필자로 참가했다.

## 9. [뉴 파워그룹 그들이 온다] (5) 담론 그룹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1월 12일

그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엘리트다. 그러나 지향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반(反)권력’이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담론(談論)을 생산하고 주도하는 지식인그룹의 특징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성역화를 도모하는 ‘지식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다.

예전의 담론그룹들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같은 계간지나 동인지로 중심으로 활동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연구회’(현 한국산업사회학회)나 ‘학현연구실’(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도 담론그룹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지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담론그룹의 역할은 축소됐다. 환경, 여성, 인권 등으로 의제 설정이 세분되고 다원화된 데다 담론 생산이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진지전 형태를 요구하게 된 점도 한몫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담론그룹이 생겨나고 있다. 주류 학계의 중심부에서 의식혁명을 외치는 뉴라이트 지식인, 금기였던 민족과 민중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들이던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제도권 밖에서 전복적 지식운동을 펼치고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권력의 우군으로 득세한 좌파이념에 맞서고(뉴라이트), 역사청산론의 허실을 짚어보고(비교역사문화연구소), 경직되고 세속화된 제도권 지식 권력의 타성에 도전하면서(수유+너머) 우리 사회의 담론을 창출하는 새로운 지식인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통점도 있다. 이영훈 교수는 위장 취업해 현장 노동운동을 했던 골수 운동권이었다. 김영호 교수는 1980년대 이념서적 출판사였던 녹두출판사 대표를 지냈고 김일영 교수 역시 1980년대 운동권 담론의 생산기지가었던 산업사회연구회 초기 멤버였다.

박효중 교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정치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를 지식인 사회의 담론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공론으로 제기할 필요성에 공감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 ○비교역사문화연구... '민족-민중 신화 벗기기' 금기 도전

뉴라이트그룹과 다른 방향에서 한국사회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민족과 민중의 신화를 벗겨 내는 담론그룹이 있다. 임지현(역사학) 교수가 소장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다.

임 교수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도발적 구호 아래 월드컵 응원전과 촛불시위로 정점에 이른 한국 민족주의가 일종의 신화이자 허구라고 주장하는 탈(脫)민족주의 담론을 선도해 왔다. 또 박정희 시대의 독재가 대중의 암묵적 동의와 지지로 가능했다는 ‘대중독재론’을 통해 독재에 대한 저항의 주역으로 자리 매김 되던 민중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임 교수의 이런 문제의식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다양한 전공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모여 비교역사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한양대 피종호(독문학) 김성제(영문학) 박찬승(역사학) 교수, 부산교육대 전진성(역사학) 교수, 건국대 권형진(역사학) 교수와 프랑스 파시즘을 연구한 ‘호모 파시스투스’의 저자 김용우(역사학) 전임연구원, 식민지 강점기 파시즘을 연구한 ‘역사적 파시즘’의 저자 권명아(국문학) 전임연구원 등이다.

24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특세한 좌파이념에 맞서고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열고 신년 활동 계획을 논의한 '교과서포럼' 멤버들. 왼쪽 앞부터 강규철, 이영훈, 김영호, 조주현(교과서포럼 간사), 김일영, 신지호, 박효중, 전상인 씨, 강병기 기자

역사청산 허실 따져보고



지난해 12월 27일 연구소에 모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멤버들. 오른쪽부터 김성제, 피종호, 임지현, 박찬승 교수와 김영미 연구원, 강병기 기자

제도권의 타성 깨뜨리고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2층 세미나실에 모인 회원들. 가운데가 고병권 대표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고미숙 박사다. 김재영 기자

그림 4: 교과서포럼, 비교역사문화연, 수유+너머

이들은 정교 분리와 탈주술화를 선언한 근대가 대중독재와 민족주의를 통해 어떻게 정치를 종교화하고 주술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공동 연구물을 벌써 4권 출간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에토스(민족적 사회적 관습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신화에 도전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는 역사 청산론에 대한 강력한 대항담론도 만들고 있다. 역사의 교훈은 특정 이념 또는 헤게모니에 의해 청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역학관계까지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중층적 기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기억의 정치학’이 그것이다.

임 교수는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기의 부역자를 색출하라는 의식에는 역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수에게 전가하고 다수의 대중은 면죄부를 얻겠다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직시하는 것만이 잘못된 권력 헤게모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 ○수유+너머... 고전 재해석 통해 여성의 담론 구축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구성원들은 전복적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1997년 이후 서울 한복판에서 함께 생활하며 고전 강독과 세미나를 통해 학문을 연마하는 연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박사와 예비 박사들이 주축이었으나 점차 석사과정, 학부 졸업생, 직장인, 전업주부로 확산되고 있다. 전공도 국문학 사회학 철학 중심에서 중문학 수학 역사학 여성학 교육학 종교학 산업디자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미국 뉴욕주 코넬대가 있는 이서카에 지부가 생겼다. 연구모델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

‘수유+너머’ 고병권 대표는 “화석처럼 굳어진 개념의 뿌리를 고전 텍스트를 통해 새롭게 캐내는 계보학적 연구와 자신의 전공을 갖고 다른 전공 분야에 뛰어드는 ‘트랜스 연구(transdisciplinary)’를 통해 제도권 학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적 담론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로고스(언어 이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출판계에서 기획자 필자 번역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니체-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노마디즘’ ‘현대사상총서’ 등 50권이 넘는다.

이들 속에 관류하는 담론은 현재까지는 ‘MN(마르크스+니체)주의’와 동아시아 근대성 연구로 요약된다.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인 이진경(본명 박태호) 서울산업대 교수와 고병권 대표는 마르크스레닌(ML)주의 대신에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니체의 철학비판을 접목한 MN주의를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적 삶을 꿈꾼다.

## 10. 뉴라이트 판 〈해전사〉 나온다

배영대

중앙일보 2006년 2월 1일

학자 20여 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8일 출간

보수.우파 지식인들이 진보.좌파의 역사교과서로 불리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을 전면 비판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을 내놓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解前史)은 1980년대를 풍미한 사회과학서로 당시 386세대의 진보.좌파적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386이 ‘해전사 세대’라 불릴 정도다.

보수 성향의 학자 20여 명이 공동집필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은 8일 출간될 예정이다. 대학 강단 밖에서 교과서 역할을 했던 《해전사》 제1권이 79년 출간된 뒤 27년 만이다. 또 다른 해전사를 만든 주역은 '뉴라이트(New right.신보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영훈(서울대 경제사).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 교수와 탈민족주의 이론을 전파해 온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교수 등이다. 700쪽 분량의 책 2권에 논문 28편을 실었다.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는 좌파민족주의 시각에서 쓰인 책이다. 이데올로기도 문제지만 실증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재인식》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 좌파 민족주의 vs 우파 탈(脫)민족주의

일제 식민지 시대와 대한민국 건국 과정 등 현대사의 주요 장면에 대한 두 책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해전사》가 진보.좌파.민족주의 시각에서 쓰였다면, 《재인식》은 보수.우파.탈민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관해 《해전사》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부각시킨다. 반면 《재인식》은 친일이란 이름으로 재단하기 힘든 식민지 시기 대중들의 다양한 일상을 재조명하려고 시도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해전사》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요직에 재기용한 점을 반민족적.외세 의존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중도좌파의 여운형과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을 주창한 김구의 노선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재인식》은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소련의 사주 아래 진행된 것으로 비판하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정한다. 《재인식》은 우리의 광복 자체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질서 재편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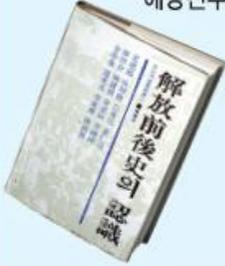
 <p><b>해방전후사의 인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사: 한길사, 1979년 10월 5일 제1권 발간, 2004년 25주년 맞아 재출간</li> <li>■ 구성: 모두 6권, 50여만 부 판매</li> <li>■ 출간 배경: 유신체제에서 성장한 반독재·좌파 지식인들이 현대사를 종합정리</li> <li>■ 주요 필자: 송건호·백기완·임종국·조동일·염무웅·강만길·박현세</li> </ul>	 <p><b>재인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사: 책세상, 2006년 2월 출간 예정</li> <li>■ 구성: 모두 2권으로 28편의 논문 수록</li> <li>■ 출간 배경: 한국사회의 좌경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온 우파 지식인들의 현대사 재해석</li> <li>■ 주요 필자: 이영훈·박지향·김철·김일영·유영익·김영호·신형기</li> </ul>	
<p>현대사를 의세에 좌우되는 암울한 역사로 평가.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성취할 것을 주장.</p>	<p><b>총론</b></p>	<p>외세 의존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승만 정권의 합법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좌파적 인식을 반박.</p>
<p>진보·좌파 민족주의</p>	<p><b>이념</b></p>	<p>보수·우파·탈민족주의</p>
<p>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노선 비판. 여운형의 중도좌파 노선을 높게 평가.</p>	<p><b>건국</b></p>	<p>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소련의 시주'로 비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성 인정.</p>
<p>식민지 시대 주요 세력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로 양분해 선악으로 규정.</p>	<p><b>친일파</b></p>	<p>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외에 불가피한 체제 순응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재조명.</p>

그림 5: 비교

외세 덕분에 얻어진 것이었음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민족주의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와 역량을 과장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 5개 출판사 전전 우여곡절

《재인식》의 출간은 순조롭지 못했다. 2004년 말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뒤 책 낼 곳을 찾지 못하고 5개 출판사를 전전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해전사》로 널리 알려진 기존의 역사인식에 대한 도발적인 반박과 정치적인 과장을 출판사들이 부담스럽게 느꼈기 때문이다.

책세상 출판사의 김광식 주간은 “나 역시 《재인식》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자들의 합리적 발언이 봉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발족한 뉴레프트(New left. 신진보)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 교수는 “《해전사》는 불모지였던 현대사 분야를 개척하며 많은 성과를 냈다”고 먼저 평가했다. 《해전사》 제4권의 필자이기도 한 그는 이어 “《해전사》가 흥미 하던 시절 보수 쪽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현대사와 관련된 구체적 연구를 거의 내지 못했는데, 이제 《재인식》이 나온다고 하니 역사를 다양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11. 출간도 되기 전 '뉴라이트' 논쟁

김태식

연합뉴스 2006년 2월 1일

《해전사》 겨냥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한국 현대사를 표방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역사책이 출간도 되기 전에 '뉴라이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엿보이듯이 지금까지 한국현대사의 주류적 역사 해석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 1979년 제1권 출간)을 공격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총 700쪽 가량 되는 2권에 논문 28편이 수록될 예정이다.

편집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와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 박지향 교수, 성균관대 정치학과 김일영 교수, 연세대 국문학과 김철 교수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1일자 기사에서 이 책이 8일쯤 도서출판 책 세상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진보와 좌파적 역사관을 대변하는 《해전사》에 견주어 이번 책은 우파적이며 탈(脫) 민족주의적이고, '뉴라이트'적인 관점에서 서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실물(책)은 아직 선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독자와 평론가)의 반응이 있을 수도 없는 상품이 뉴라이트라든가 우파적인 사관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책의 한 필자는 “《해전사》가 제시한 역사해석이나 사실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파적이라거나 뉴라이트적인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영훈 교수나 김일영 교수처럼 국내 '뉴라이트' 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필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이 '뉴라이트'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의 한 편집위원은 “우리가 이번 책을 기획한 가장 큰 의도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해전사》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서에서 잘못 제시된 역사사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위원 중 이영훈, 박지향, 김철 교수는 그동안 《해전사》로 대표되는 주류적인 한국현대사 해석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은 물론

이런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파시즘적 민족주의를 주창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서두에 실리게 될 이영훈 교수의 '백두산 신화의 탄생'에 대한 논문에서 집약될 전망이다.

여기서 이 교수는 백두산이 20세기 초두에 갑자기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대두하게 된 과정과 거기에 민족주의 담론이 어떻게 '억압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 12. “좌우이념 떠나 실증적으로 접근”

엄주엽·최영창

문화일보 2006년 2월 1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펴내는 '뉴라이트' 교수들

이념의 시대였던 1980년대 좌파 운동권의 역사교과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한길사)을 우파 지식인들이 다시 비판적으로 기술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 오는 8일쯤 출간된다.

《해전사》는 1979년 제1권이 나온 이후 10년간 6권까지 완간됐으며, 정권의 판매금지 처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소위 386세대 사이에 우리 현대사의 '정사(正史)'처럼 읽혀온 역사 시리즈물이다.

이번에 새로 쓰는 해전사를 만든 편집위원은 '뉴라이트(New right·신보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영훈(서울대 경제사), 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 교수와 탈민족주의 이론의 입장에 서온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김철(연세대 국문학)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700쪽 분량의 책 2권에 논문 28편을 실었으며 그 중 일본과 미국 학자의 논문도 8편이

들어있다.

이영훈 교수는 “기존의 《해전사》는 이념이 앞서고 실증은 없는 역사책”이라고 비판하고 “좌우를 떠나 실증적이고 사실적인 연구논문,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한 역사논문들을 이번 《재인식》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을 떠나 실증적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주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존 《해전사》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덧붙였다.

그러나 편집위원 중에는 이번 책이 ‘우파의 입장’에서 본 역사서라는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 책의 편집위원 중 한 명은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편집위원은 ‘뉴라이트 해전사’라는 평가에 대해 펄쩍 뛴 것”이라며 “책이 나와 서문이나 논문을 읽어본다면 28편의 논문 필자들 전부가 우파 지식인은 아니며 이념을 떠나 역사를 균형있게 보자는 입장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해전사》가 실증적으로 문제가 많고 출간된 지도 20년이 넘었다”며 “이번 책은 어떤 이념적 입장을 갖고 새로 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연구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편집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데, 이런 말이 더 이상 만나오게 하지는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1970~80년대는 좌파 서적이 출간되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우파의 연구서들이 출판사를 찾기 힘들었다. 《재인식》

역시 2004년 말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뒤 책 낼 곳을 찾지 못해 5개 정도의 우수 출판사를 전전했다고 한다.

### 13. 《해전사》 전면비판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오창엽

프로메테우스 2006년 2월 1일

#### ‘386 교과서’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주요 필자들

오는 9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판된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일 <뉴라이트 판 《해전사》 나온다>라는 기사를 1면에 실으면서 79년에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과 이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을 소상히 비교했다.

그 동안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은 “진보, 좌파의 역사 교과서”로 불렸고 “80년대를 풍미한 사회과학서로 당시 386세대의 진보. 좌파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386이 ‘해전사 세대’라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수, 우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해전사》를 전면비판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출간하게 됐다는 것이다. 27년 만에 어떤 책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전혀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면 비판하는 책이 등장한다는 것은 몹시 흥미로운 일이다.

공동집필 총 700쪽 2권 분량, 28편의 논문 수록

이번 《재인식》 작업에는 보수성향의 학자 20여명이 공동집필 형식으로 참여하며 ‘뉴라이트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이영훈(서울대 경제사), 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그리고 김철(연세대 국문과),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교수 4인이 편집위원이다. 그렇게 해서 총 700쪽

분량의 2권에 28편의 논문이 실렸다.

편집위원 가운데 한 명인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는 좌파민족주의 시각에서 쓰인 책이다. 이데올로기도 문제지만 실증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재인식>을 준비했다”고 중앙일보는 소개했다. 《해전사》가 진보, 좌파, 민족주의의 산물이라면 《재인식》은 보수, 우파, 탈민족주의로 대응한 셈이다.

아울러 <재인식> 출간은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2004년 말 편집위가 구성됐지만 출판사를 구하지 못해 5개 출판사를 전전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책세상 출판사의 김광식 주간이 출간 이유를 “나 역시 <재인식>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자들의 합리적 발언이 봉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출판하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25주년 때 재출간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10월 15일 첫 권이 출간됐는데 2004년 25주년을 맞아 재출간됐다. 모두 6권까지 이어졌고 총 50여만 부가 판매됐다고 한다.

《해전사》에 참여한 필자들을 보면 그 동안 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 활약한 ‘진보’ 지식인들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강만길, 김남식, 김윤식, 박명림, 박현채, 백기완, 송건호, 염무웅, 이종석, 최장집, 장상환 등 십년 동안 수십 명이 참여했다.

김윤식 교수이자 문학평론가는 진보적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해방공간의 문학>을 소개했다. 고 박현채 교수는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였으며 소년 ‘빨치산’ 출신으로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조원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이종석씨는 NSC 사무처장을 거쳐 이변에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최장집 교수는 김대중정부 시절 필화사건을 겪었고 장상환 교수는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그림 6: 2004년 25주년을 맞아 재출간한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표지

중이다.

10·26 정변 직전 출간, “불꽃 같이”팔려

한길사는 25주년을 기념하여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재출간 하면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친일 군상부터 반민특위, 미군정,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해방전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매우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오늘의 역사, 사회의 현실적 맥락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적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1979년 10월 첫 출간 이후로 이 책은 지식인, 학생을 비롯한 민중들 사이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회자되기 시작했고 이윽고 검열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초판이 불꽃 같이 판매되었고 2쇄, 3쇄를 원하는

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 책은 계엄령 하에서 군 당국의 검열을 받으며 ‘판금’이라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5·17때 저자들 구속, 한길사 문 닫을 뻔

김언호 한길사 대표의 술회에 따르면 “1979년 10월 15일, 10·26 정변 열하루 전에 간행된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1권은 민족분단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강한 질문이었다. 외세에 의해 민족과 국토가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기왕의 분석에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10·26으로 한동안 판금되었지만 나는 80년 서울의 봄, 서울 시청에 진주하고 있던 계엄군 검열실을 찾아가 그들과 토론을 벌였”고 “5·17 이후에 우리 저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조사받았으며 또 대학 으로부터 쫓겨났다. 정부당국은 한길사를 아예 없애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82년에 나는 문공부로부터 영업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주일 만에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취소시키는 기록을 남겼다. 나에게 그것은 대단한 체험이었다. 장관이 결재한 것을 번복시켰으니 말이다.”라고 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출간 소식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책 세상 측에서는 “저희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책세상 홈페이지에 이 책에 대한 소개나 표지 등 어떤 자료도 보이지 않아 그 이유를 묻자, “9일 출간이고 13일에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앙일보는 《해전사》출간일을 79년 10월 5일이라고 했는데 15일이며 주요 필자로 조동일을 꼽았는데 조동걸이다.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통사》를 썼으나 《해전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 14. [사설] ‘해방 前後史의 인식’의 再인식

사설

동아일보 2006년 2월 2일

1980년대 대학가에서 '현대사 교과서'로까지 통했던 '해방 전후사(前後史)의 인식(해전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책이 출간된다. 20여 명의 학자가 공동 집필해 8일 선보이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그동안 축적된 현대사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다.

1979년 출간된 '해전사 인식'은 서점가에선 '잊혀진 책'이지만 현실 세계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은 시절 이 책을 통해 역사관을 형성한 386세대가 정치와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권(與圈)과 운동권 일각에서는 '해방 후 남한 단독정권 수립'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다라는 식으로 곤잘 말한다. 이는 '해전사 인식' 속에 깔려 있는 좌파 민족주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4대 입법' 가운데 과거사 정리와 친일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도 이런 역사 인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일 청산을 위해 역사를 다시 정리해야 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며, 사학도 친일세력 및 지주계급과 연결돼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펴내는 학자들은 '해전사 인식'이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역사적 진실과도 상당 부분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 필자는 “‘해전사 인식’은 1970년대 후반 한국현대사 연구가 일천했을 때 쓰인 것”이라며 “이후 연구의 진척에 따라 내용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386세대들이 아직까지 책 내용을 모두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새 책이 '해전사 인식' 이후 20여 년간 이뤄진 연구 성과를 반영해 해방 전후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역사 기술(記述)의 균형 회복을 위

해 바람직한 일이다. 과학적, 실증적 근거가 역사의 생명이다. 새 책은 ‘해전사 인식’이 미군정(美軍政)과 친일 청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역사 연구의 이런 진전이 국민의 역사 인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혼란도 극복되어야 한다.

### 15. [사설] 해방전후사 ‘再認識의 필요성

사설

조선일보 2006년 2월 2일

386세대의 ‘교과서’ 격인 ‘解放前後史해방전후사의 認識인식’(속칭 ‘解前史해전사’)의 偏向편향을 바로잡는 ‘해방전후사의 再재인식’이라는 책이 다음주 나온다고 한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좌파 민족주의에 치우쳐 대한민국의 건국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外勢외세에 끌려다닌 암울한 역사로 기술한 《해전사》의 낡은 틀에 맞서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를 아울러 700쪽짜리 책 2권 분량에 수록 논문만 28편이나 된다.

1979년 처음 출간된 《해전사》는 386세대의 意識의식을 바꿔놓은 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을 낳게 된 遠因원인을 만든 책으로 꼽힌다. 해방 이후 親美친미 右派우파가 득세하면서 民族自主민족자주 세력이 좌절했고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권 수립이 분단의 永久化영구화를 가져왔다는 이 정권의 대한민국 역사관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得勢득세한 역사’로 규정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노 대통령 스스로도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이 《해전사》를 열심히 읽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런 역사 인

식은 북한이 이승만이 단독정권 수립의사를 밝혔던 이른바 ‘井邑정읍 연설’보다 훨씬 이전에 소련의 사주로 사실상 북한 단독정권의 뼈대를 미리 만들었던 사실에 눈을 감고,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소련군의 보호를 받던 김일성 系계의 무장세력만 正統視정통시한 것이다. 이런 고의적 역사왜곡과 일방적 역사해석이 그 시대의 대학생과 일부 在野재야에 먹혀든 것은 군사 독재와 그 연장선상에서 빚어진 ‘光州광주의 비극’ 탓이었다.

현 정권의 핵심을 이룬 세력들은 아직도 《해전사》를 대한민국의 正史정사인 양 착각하고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국가’란 부정적 歷史觀역사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부 386 교사들은 지금 이 시간도 27년 전에 나온 《해전사》의 剝製化박제화된 左派좌파 역사관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해전사》의 문제를 알면서도 傍觀방관한 주류 학계의 무책임과 나태의 탓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뒤늦게나마 지식인들이 《해전사》의 편향을 바로잡는 책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16. [사설] 해방전후사 재조명을 환영한다

사설

중앙일보 2006년 2월 2일

1980년대 좌파 운동권의 역사 교과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보수·우파 지식인들이 비판적으로 기술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27년 전 처음 나온 《해전사》는 지금까지 6권이 출간되면서 386세대의 역사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386세

대뿐만이 아니다. 80년대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온 세대에게 《해전사》는 청량제 같은 존재였다. 한국전쟁 이후 숙명적으로 우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발로 새 방향을 제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해전사》가 좌파민족주의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방 전후 공간에서 불가피했던 시대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령 이승만 정권의 출범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중도좌파의 여운형을 높이 평가한 것 등이 그렇다. 당시 이승만이 없었다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아예 무시했다. 이런 시각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는 좌편향을 걱정할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런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보수·우파 학자들이 《재인식》을 집필키로 했다고 한다. 역사를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켜 객관화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그간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은 너무 이념에 얽매어 있었다. 좌와 우 모두 이념 과잉으로 흘렀던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나마 90년대 들어 소련의 붕괴와 독일 통일을 계기로 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이념논쟁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굳이 헤겔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정(These)'과 '반(Antithese)'의 투쟁을 통해 '합(Synthese)'을 만들어 내며 발전한다. 학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전사》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이었다면, 《재인식》은 좌파가 판치는 지금 세상에 대한 '반'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방전후사는 물론 현대사 전반에 대해 이념의 색채를 뺀 객관적·과학적인 토론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 17.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우파적 사관 대변 논란

연합뉴스

서울신문 2006년 2월 2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한국 현대사를 표방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역사책이 출간도 되기 전에 ‘뉴라이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한국현대사의 주류적 역사 해석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1979년 제1권 출간)을 공격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총 700쪽가량 되는 2권에 논문 28편이 수록될 예정이다.

편집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와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 박지향 교수, 성균관대 정치학과 김일영 교수, 연세대 국문학과 김철 교수로 구성돼 있다.

●“반대증거 제시가 우파적이라 할 수 있나”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1일자 기사에서 이 책이 8일쯤 도서출판 책세 상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진보와 좌파적 역사관을 대변하는 《해전사》에 견주어 이번 책은 우파적이며 탈(脫) 민족주의적이고, ‘뉴라이트’적인 관점에서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실물(책)은 아직 선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독자와 평론가)의 반응이 있을 수도 없는 상품이 뉴라이트라든가 우파적인 사관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책의 한 필자는 “《해전사》가 제시한 역사해석이나 사실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어떻게 우파적이라거나 뉴라이트적인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영훈 교수나 김일영 교수처럼 국내 ‘뉴라이트’ 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필진에 포함돼 있다고 그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

이 ‘뉴라이트’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잘못된 역사 사실 바로잡겠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의 한 편집위원은 “우리가 이번 책을 기획한 가장 큰 의도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해전사》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서에서 잘못 제시된 역사사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위원 중 이영훈, 박지향, 김철 교수는 그동안 《해전사》로 대표되는 주류적인 한국현대사 해석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은 물론 이런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파시즘적 민족주의를 주창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서두에 실리게 될 이영훈 교수의 ‘백두산 신화의 탄생’에 대한 논문에서 집약될 전망이다.

여기서 이 교수는 백두산이 20세기 초두에 갑자기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대두하게 된 과정과 거기에 민족주의 담론이 어떻게 ‘억압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 18. [포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사상전쟁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문화일보 2006년 2월 7일

해방 정국에서 통일국가 수립은 남한 주도와 북한 주도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가 가능했으며, 실제 한국전쟁에서 시도됐다. 만약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없었다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졌을 것이며, 반대로 중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실현됐을 것이다.

강정구 교수가 김일성 남침을 ‘통일전쟁’이라고 하자 어떻게 감히 ‘통일’이라는 신성한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분노의 비판이 나오듯이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장준하의 말은 역사의 현장에서는 낭만이거나 위선에 불과하다.

분단의 고착으로 끝난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을 해방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북한 주도의 끔찍한 통일을 피하고 남한만이라도 지켜낸 것은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직한 한국적 사고이다. 반면, 북한 정권이 자신의 통일 야망을 깨트린 미국을 이른바 반통일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거대한 외부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해방 정국에 대해 27년 전 ‘자주적 선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가 있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광복·미군정·분단·반민특위·농지개혁·북한 등 각 분야의 논문들을 모아 모두 6권으로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이 그 것이다.

“《해전사》는 80년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공동 작업 또는 성과이며, 그 독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되고 있다”는 출판사 대표의 말처럼 《해전사》는 현재 진보로 자처하는 세력의 역사관을 형성했으며 386세대에 미친 영향력은 전교 조와 일부 언론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계속 복제되고 있다.

《해전사》는 레닌이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조롱했던 서구의 좌파적 리버럴들과 유사한 명분론에 빠진 민족주의자와 중도 파들을 복권시키며, 현실주의에 입각한 지도자들을 비판대에 세운다. 《해전사》의 일부 논문들은 마르크스의 계급사관에 입각하여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민주개혁으로 평가하고, 당시 인구의 다수였던 남한의 농민들을 반체제 세력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해전사》는 남한의 단독정부를 추진한 이승만을 비판하고 김구, 여운형 등의 남북합작노선을 통일의 노력으로 평가하지 만, 이미 소련이 북한을 자신의 위성국으로 만들 결심을 굳힌 상황에서 결정권이 전혀 없는 김일성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추진한 것은 현실적 선택을 회피한 위험한 이상주의 이상은 아?求?

극단적 민족주의와 계급이론이라는 미리 짜인 필터로 걸러진 재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쓴 《해전사》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을 반민족으로 단죄하고, 민족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넘어 정당성까지 부여한다.

《해전사》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학 풍조의 원천이 된 것은 친북 좌파로 귀결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그들의 주류화가 결정적이지만, 반공에만 안주한 산업화 세력의 책임도 있다. ‘좌는 원천적으로 나쁘다’는 선악 개념만으로 역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군사정권을 혐오하고 불신한 80년대 대학생들에게 그 반대편에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키워주었고, 이 시대에 속하는 필자도 《해전사》의 충격은 생생하다.

소련·동유럽이 무너지고, 북한 체제의 반인륜성이 알려져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라는 세계사적인 평가가 내려진 지금 해방 정국의 평가는 무척 쉬워졌다. 더구나 옛 소련의 비밀문서들이 공개 되면서 북한 정권 탄생을 기획한 스탈린의 역할도 증명됐다.

마침 《해전사》의 일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성과가 나왔다.

20여 명의 학자가 공동 집필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논문 28편을 선보인다. 실증주의와 탈 민족주의를 내건 이 책으로 인해 유투피아주의와 정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를 역사 그 자체로 보는 풍토의 정착을 기대한다.

## 19. [바로잡습니다] 2월 1일자 1면 '뉴라이트판(版)...' 기사

데스크

중앙일보 2006년 2월 8일

2월 1일자 1면 '뉴라이트판(版) 해전사 나온다' 기사에서 언급한 '뉴라이트'는 특정 연구집단이나 정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8일 발간될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책이 1980년대 진보·좌파의 역사교과서로 불려온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전면 비판하는 성격이기에 새 책을 '뉴라이트판'이란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뉴라이트는 과거의 우파와 다른 새로운 지식사회의 흐름이며, 그간의 진보·좌파적 시각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새 책을 펴낸 편집위원과 필진 가운데 일부가 '뉴라이트 네트워크'등 신보수 연구집단에 소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단체에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책을 펴내는 것은 아닙니다.

## 20. 〈해전사〉 겨냥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김태식

연합뉴스 2006년 2월 8일

일본 식민지배 잔학상의 하나로 한국어 말살론은 의문의 여지 없이 통용되고 있다. 이에 견주어 한글을 지키고자 했으며, 그 운동 자체만으로도 민족해방운동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조선어학회 활동이다.

과연 일제는 한국어를 말살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민족의 씨를 말려 버리고자 했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그렇지 않았다.

총독부는 조선어학회가 추진하는 철자법 개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개정을 비롯한 조선어문 통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다른 모든 것 볼 것 없이 이 회의에 조선총독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왜 조선어학회 활동은 항일민족운동으로만 평가되고 있을까?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기 때문이다. 조선어학회 활동에 총독부가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그 후원자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실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다.

이혜령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강사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조선어학회가 추진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보급운동은 총독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아 떨어진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할 때, 일본 식민지시대에 대한 종래의 압도적인 이분법적 이해 구도인 친일과 반일이라는 시각을 적용해 본다면, 조선어학회야말로 친일단체가 되어 버린다.

춘원 이광수.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친일파의 대명사로 통용된다.

춘원은 친일파였는가? 질문을 바꾸자. 춘원이 친일파였다는 것만으로 춘원에 대한 모든 논의는 종결되고, 오로지 향후 연구는 그런 친일 행위를 보강만 해야 할까?

일본 주부대학 인문학부 조관자 교수는 이런 단순한 시각에 의해서 춘원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춘원이야말로 강렬한 민족주의자였다.

조 교수에 의하면, 춘원에게서 일본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문제는 단순히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고려한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인이 강력한 민족으로 재생하기를 열망한 민족주의자였다.

이와 같은 조 교수의 주장에서 우리는 소위 친일행위와 민족주의가 상극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민족주의자=항일운동가'라는 도식에 의한다면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한 단재 신채호나 소위 적극적 친일파인 이광수는 같아진다.

출간도 되기 전에 이미 무성한 말이 나돌았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전2권.책세상). 8일 출간된 이 《재인식》은 그것이 공격대상으로 설정한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 1979~1989)이 좌파적.민족주의적 색채로 일관한 것과는 달리, 필자에 따라 각양각색하는 역사관을 보이기는 하나,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 한국현대사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만큼은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신채호와 이광수만 해도 민족주의자나 친일파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이나 그들이 속한 사회는 다층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자기 아들을 일본의 성전(聖戰)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대표적 친일문학으로 거론되는 최정희의 '야국초'라는 소설은 자신을 배신한 조선인 남성에게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경험을 토로한 '저항문학'이 된다. 미국 시카고대학 최경희 교수는 적어도 이렇게 평가한다.

그 반대로 지금까지는 일제에 수탈되어 만주로 유리하는 조선 농민의 아픔을 담아내 민족문학으로 평가되는 '농군'은 정반대로 일제의 만주경영에 적극 부응하는 '국민문학'(친일문학)이 될 수도 있다.

연세대 김철 교수는 이 '농군'이야말로 만주로 들어간 조선 농민들이 중국 농민을 미개인으로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분쟁에는 일본 헌병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제국주의적인 문학이라고 주장한다.

논문 31편을 서술 대상시기(해방 전과 해방 후)와 그 주제에 따라 적절히 배열한 이번 《재인식》은 《해전사》로 대표되는 기존 민족주의적 관점의 역사해석에 대한 파상 공세라 할 수 있다. 전2권 1천406쪽, 6만1천원.

## 21. 대통령의 피를 거꾸로 솟게한 역사—①

김태식

연합뉴스 2006년 2월 8일

2004년 8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요지의 말들을 쏟아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이는) 정부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좌우대립의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 한 쪽이 일부러 묻혀지고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적어도 자기 나라와 공동체를 배반한 사람에게 새롭게 건립되는 사회에서 득세하지는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하는 정도의 역사청산 작업은 꼭있어야 한다”면서 “이주 심한 경우에는 처벌도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와중에 노 대통령은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을 겨냥한 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된 일을 언급하면서 “가슴 속에 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이라고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을 법한 반민특위 관련 보고서나 연구서는 많았다.

단행본으로는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가람기획 편집부.1995)를 필두로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 친일과 청산 그 좌절의 역사'(허종.선인.2003)와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 증언 반민특위'(정운현.삼인.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민특위를 전문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친일문학 연구를 개척했으며, 이를 토대로 친일잔재 청산을 부르짖은 고 임종국 씨의 연구성과도 입수가 쉬웠을 것이며, 아울러 학술적인 성격이 강하긴 해도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에 수록된 관련 논문들도 노 대통령은 읽었을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의 과거사에 대한 이런 언급을 전후해서 참여정부와 그에 사상적으로 가까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청산작업은 본격 기치를 들었다. 친일과 색출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은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 그 순간에, 그 고백에 거꾸로 피가 솟는 충격을 받은 일군의 역사연구자도 나타났다.

이들이 분노한 것은 노 대통령을 분노케 한 그 역사적 근거가 상당수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합심해 8일 출간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 전2권. 책세상)은 거꾸로 솟은 대통령의 피를 다시금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목적 의식은 이번 《재인식》 편집진을 대표해 박지향 서울대학교수가 붙인 머리말에서 확인된다.

박 교수는 여기에서 "1980년대 출간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서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 유기'라

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인식》이 제목으로 보나, 성향으로 보나 거의 모든 면에서 1979년제1권 출간 이후 89년에 총 6권으로 완간됐으며 한국근현대사를 해석하는 일종의 준거 구실을 하고 있는 《해전사》에 대한 파상공세의 일환임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해전사》 vs. 《재인식》

일부 언론이나 《해전사》 인사들은 필진에 소위 '뉴라이트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이영훈(서울대), 김일영(성균관대), 김영호(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된 점을 들어 이번 《재인식》이 보수우파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나, 그렇게만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오히려 《해전사》를 겨냥한 이번 《재인식》 필진에서 독특한 인물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신형기(연세대) 교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해전사》 필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이번 《재인식》 필진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있다. 강렬한 '탈(脫)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영훈 교수만 해도, 그의 주된 기조는 '탈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뉴라이트' 계열이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해전사》로 대표되는 기존의 역사해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워낙 강하고, 그에 따라 사사건건 그들의 역사해석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우파적인색채가 강하게 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인지 《재인식》 필진에서는 이번 공동연구성과물이 우파적으로 비칠지 모르는데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우리가 《해전사》에서 드러난 역사해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것이 '좌파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그

렇다고 《재인식》이 우파적 역사해석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좌파적이건 우파적이건 관계 없이, 이번 《재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성역'처럼 군림하는 '민족'과, 그것을 절대의 도덕법칙으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에 대해정면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예컨대 노 대통령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는 친일파 문제만 해도, 그 실제적 역사 상황을 들여다 보면, 한국근현대사가 친일과 반일의 도식 구조로 해석될 수없다고 《재인식》은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인식》에서는 친일파의 대명사적인 춘원 이광수를 '민족주의자'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친일문학을 했다고 간주되는 여류소설가 최정희는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평가한다. 반면, 좌파계열 민족주의자로 간주되던 작가 이태준은 일본제국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본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일제 전시기에 구축된 파시즘적 동원체제만 해도 남한은 몰라도 북한에서는 극복되었다는 《해전사》류의 평가에 대해서도 남한이건 북한이건해방 이후에도 모두 그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식민지시대에 조선이 급격히 공업화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재인식》은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재단되어 오던 한국근현대사를 '별집 구조'로 파악하는 한편, 그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살아간 생활상을 복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만큼은 높이 평가되어도 좋을 듯하다.

일제시대만 해도 종래 《해전사》식 견해에 의한다면, 식민지 조선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일제의 강압과 감시와 폭력만이 난

무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인식》은 그런 식민지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가장 극심한혼란기였다는 1950년대에도 한국사회는 그 자체가 생의 욕망이 용솨음치는 '사람이 살던 사회'였음을 내보이고자 했다.

##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해전사 좌편향에 반기... 역사 다시 쓰기

김남중

국민일보 2006년 2월 9일

1979년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 출간된 지 27년만에 그 내용을 전면 비판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나왔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역사 교과서이자 '386'으로 대표되는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역사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식'의 역사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재인식》은 출간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책은 국내 이념대립의 단골 주제인 과거사 청산 문제와 친일 청산, 한국전쟁의 책임론, 한미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 국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주요내용

두 권을 합해 총 1400쪽이 넘는 《재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그 후 1950년대를 무대로 민감한 논점들을 짚어간다. 먼저 《재인식》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산 사람들을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서 대표적 친일파로 낙인찍힌 소설가 이광수를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인이 강력한 민족으로 재창하기를 간구했던 민족주의자로 재규정하는가 하면,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 민족운동단체로 알려진 '조선어학회'가 사실은 조선총독부와 항상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림 7:

심지어 둘이 협조했던 사례가 있다고 제시한다.

전쟁과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과 미군정에 돌리는 '인식'의 역사 해석에도 반대한다. 이정식(펜실베니아대 명예교수), 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 등의 논문을 통해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할 의향을 밝히기 전인 1945년 9월에 스탈린이 북한의 소련군정에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구축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고,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세계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 '인식'이 독재자로 묘사한 이승만을 '한국판 마키아벨리'로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기본이 된 한미상호보호조약 체결은 그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역사 해석은 1950년대에 대한 시각 교정도 요구한다. 그 시기를 외세에 좌우되던 어둡고 정체된 시기로 기술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시도하고 자본주의적 시

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진보가 이뤄졌다”고 의미 부여한다.

#### ◇출간 의미

‘인식’이 반공주의로 얼어붙은 1970년대 말 우리사회의 이념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기여했다면,《재인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이념추가 좌측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판단 아래 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인식》의 편집위원들은 ‘인식’이 근현대사를 좌파적·민족지상주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규정하고,이런 시각이 그동안 우리 지식계를 압도해 왔다고 진단한다.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머리말에서 “우리는 ‘인식’의 역사 인식이 너무도 편협하고 균형각각을 잃고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설명했다.

또 《재인식》은 ‘인식’의 역사 서술이 일국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어서 비교사적 관점과 실증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재인식》은 ‘인식’ 출간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축적된 근현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민지 경제의 발전을 조선 경제의 발전으로만 해석할 수 없듯이 그 성장의 과실을 모두 일본인이 차지하고 조선인은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역설한다. 또 북한이 해방 후 내걸었던 ‘혁명적 신인간’이란 일제가 전시에 내걸었던 ‘혁신적 국민’의 재판에 불과하며,일제의 전시 통제경제체제가 지금까지 계승되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인식’을 출간한 한길사의 강옥순 주간은 “《재인식》 편집진이 ‘인식’에 담긴 시각을 좌파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한 뒤 “‘인식’에 깔린 역사의식은 민족주의 그 자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인식》의 편집진이 그들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를 독자적인 형태로

발간하지 못하고 '인식'을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해전사》 어떤 책인가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10월 15일에 첫 권이 출간됐으며, 이후 10년에 걸쳐 6권으로 완결됐다. 지금까지 모두 합해 50여만부가 판매됐다. '인식'은 10·26으로 판금되었다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해금됐다. 5·17 이후 저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조사받았으며 대학으로부터 쫓겨나는 등 수난을 겪었다. 한길사는 2004년 '인식'의 출간 25주년을 맞아 재출간을 하면서 “친일 군상부터 반민특위, 미군정, 분단에 이르기까지 해방 전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매우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오늘의 역사, 사회의 현실적 맥락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적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인식'에 참여한 필자들은 그동안 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 활약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망라됐다. 강만길 임현영 염무웅 이종석 최장집 송건호 백기완 김윤식 조동걸 등 50여명에 이른다. 이 중 강만길 교수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며, 이종석은 NSC 사무처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 임현영 중앙대 문창과 교수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며,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 출간 과정·저자 면면

재인식'은 2004년 초가을 처음 기획되었다.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교수는 머리말에서 “그 무렵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른바 386세대를 대표하는 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견제와 반발 의식이 직접적 집필 계기였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 교수는 이어 “20여년간 학계의 부단한 연구로 ‘인식’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수정되어왔는데도 그런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간 진척된 수준 높은 학술 논문들을 선정, 대중에게 알기 쉽게 재시해주자는 목표로 책을 냈다”고 밝혔다. 그 해 겨울 박 교수는 김철(연세대 국문학) 김일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 이영훈(서울대 경제사) 등 4인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참가한 필자는 모두 20명.

이 중에는 카터 J 에커트(하버드대 한국학), 기무라 미쓰히코(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 등 외국 필자뿐만 아니라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신형기(연세대 국문학) 등 ‘인식’ 필자들도 일부 참여했다. 편집위원회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 중 우수한 것을 골라 뽑은 뒤 필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해 수록했다.

《재인식》은 출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부터 작업을 함께했던 출판사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출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두 번이나 겪었다. 이 일에 대해 편집위원들은 우리 지식계와 출판계의 편향성, 그리고 비판과 토론을 수용하지 않는 편협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새삼 실감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를 돌고 돌던 원고는 책세상 출판사를 통해 빛을 보게 됐다. 김광식 책세상 주장은 “나 역시 《재인식》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자들의 합리적 발언이 봉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출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림 8:

### 23. “解前史는 편향”... 이념논쟁 부를 듯

김범수

한국일보 2006년 2월 9일

解前史의 우파 버전《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필독서로 꼽혔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해 발행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8일 출간됐다. 박지향 이영훈(이상 서울대) 김철(연세대) 김일영(성균관대) 교수가 편집을 맡아 책세상 출판사에서 2권으로 나온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해전사》를 '좌파민족주의'의 엉터리 역사학으로 몰아붙여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진영간 이념적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글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를 '1980년대 좌파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쓰기'에 다름 아니라고 혹평했다.

책에는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한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 30편과 편집위원 대담 1편이 실렸다.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전사》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인 '민족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역사인식이 '우리 역사에 끼친 폐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료를 바탕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해보자는 의도에서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제시대 및 친일파와 관련해 《해전사》가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 수탈 대 핍박이라는 이분 구조를 강조한다면, 《재



그림 9: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현실 조건을 잘 활용한 마키아벨리와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식》은 단순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태의 이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해전사》가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을 돌린다면, 《재인식》은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농지개혁의 경우 《해전사》가 지주제를 온존시키고 영세농민만 만들었다고 폄하한데 반해, 《재인식》은 농지개혁 덕분에 남침한 북한군이 기대했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승만 정권과 1950년대에 대한 평가는 특히 엇갈린다.

《해전사》는 이승만을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결국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반면, 《재인식》은 약소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로 그렸다.

《재인식》의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1979년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던 《해전사》 제1권 필자인 조동걸 한양대 명예교수는 “수공할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전사》의 필진이면서 《재인식》에도 자신의 논문 게재를 허락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편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자는 이념 성향을 논할 필요가 없는 전문 연구자들이고 《해전사》 이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이런 책일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해전사》를 좌파 편향으로 매도하거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편집위원들의 지적은 수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보수진영 '새 역사책' 필요

'... 재인식' 왜 나왔나—“균형잡힌 시각”강조 불구 편집위원 대부분 보수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어쩌면 많은 연구자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온 책일지도 모른다. 1979년 첫 권을 낸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94년 제6권으로 마무리될 즈음부터 국내 학계의 근현대사 연구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소용에도 불구하고 《해전사》는 이 물리적인 '시차' 때문에 일찍이 속편을 봐야 하는 책이었다. 문제는 《해전사》에 대한 비판을 자임하면서, 한편으로 《해전사》의 속편으로 볼 수도 있는 《재인식》이 근현대사에 대한 보수적 인식을 대변하는 책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의  
쟁점별 입장차**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6권(논문 58편)	분량	2권(31편)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다	<b>조선어학회 활동</b>	조선어학회도 일제에 협조. 제국의 틀 안에서 차별을 완화하고 이익을 확보하는 수준이다.
북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완벽했다	<b>일제 잔재 청산</b>	남북한 모두 일제와의 단절보다 연속이 해방전후사를 지배했다
미군정의 적대정책 때문이다	<b>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실패</b>	노동계급의 성숙도를 믿지 않고 강경노선으로 치달은 결과다
지주제가 온존했고 영세농민만 만들어냈다	<b>농지 개혁</b>	농지개혁의 성공 덕에 남침한 북한군이 기대했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이 있다	<b>분단과 한국전쟁</b>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전략이다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b>이승만 정권</b>	약소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려고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다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다	<b>1950년대</b>	의회·정당 정치를 확립하고 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나라의 진보가 있었다

그림 10:

출간 전부터 편집위원들이 일제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해방전후사의 인식》보다 좀 더 균형잡힌 시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수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런 혐의를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에 실릴 논문을 고른 편집위원 4명 중 김일영 교수는 '뉴라이트 싱크넷'이라는 모임에, 이영훈 교수는 '교과서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교과서포럼'은 현 국사교과서가 사실 오류에서 이념 편향까지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둘 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신보수주의' 학술·사회단체 중 하나다. 책에 실린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를 좌익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책으로 심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또 박지향 교수는 '2004년 초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 대로 두고 보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이 책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실린 글들이 한결같이 균형 감각을 갖춰느냐는 것도 따져볼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현대사를 전공한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한미방위조약 체결은 긴 교섭기간 전체를 놓고 공과를 평가해야 하며, 경제에 무관심했던 이승만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업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 동안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건 사실이나 이런 식의 종합적이지 못한 평가가 균형 잡힌 역사 서술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 24. ●해전사란...

박광희

한국일보 2006년 2월 9일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한국 진보학계와 젊은 세대의 역사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대중 역사서이다. 1979년 10·26 직전 제1권이 나왔으며 89년 제6권 출판으로 완간됐다. 책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방 전후 한국 사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으며, 특히 친일문제 등 제도권이 다루지 않은 주제를 집중 소개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학가의 필독서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50만~60만권 정도 판매됐는데, 이 가운데 1권이 40만권 정도 된다. 1권의 파급력이 그만큼 강렬했던 것이다. 1권은 초판 출판 직후 판권 조치 당했으나 80년 원고 일부가 삭제된 가운데 신군부의 검열을 통과, 합법적으로 판매됐다.

서울대 김학준, 이화여대 진덕규, 성균관대 이동화, 영남대 염무웅, 중앙대 유인호 이종훈 교수와 언론인 송건호, 친일문제연구가 임종국, 재야운동가 백기완, 문학평론가 임헌영씨(이상 당시 직책) 등이 저자인데 지금 보면 우파 인사도 적지 않다.

## 25. ‘解前史’ 맞선 《재인식》 출간...출판계 좌·우 논쟁

조운찬·도재기

경향신문 2006년 2월 9일

최근 이른바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를 표방하며 활발한 조직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지식인들의 좌·우 논쟁이 출판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영훈(서울대)·김일영(성균관대) 교수 등 보수 진영의 학자 20여명은 8일 1990년대 이후 해방 전후사의 연구성과를 모은

해방전후사 인식	'해전사'와 '재인식'의 역사인식 비교		해방전후사 재인식
침략·수탈로 자본주의 싹 제거	일본제국주의 성격	경제력 발전, 근대화에 기여	
남한은 불철저, 북한은 청산완료	일제잔재 청산	남북한 모두 일제잔재 청산 실패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	분단과 한국전쟁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	
일제에 저항한 민족운동	조선어학회 활동	조선총독부 정책에 협조	
불철저한 개혁, 자주제 온존	농지개혁	성공적인 개혁	
부일 세력 끼고 집권, 분단 초래	이승만 정권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 마련	
정치적 혼란기	1950년대	의회정치·정당정치 확립기	

그림 11: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전2권·도서출판 책세상, 이하 《재인식》)을 출간했다.

이·김교수와 함께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전사》의 인식을 극복할 현대사 연구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교수는 또 “지난 20여년간 학계의 부단한 연구로 《해전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수정돼 왔는데도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역사인식을 균형있게 되돌려 놓는 일이 시급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편집위원들은 《재인식》은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해전사》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을 살펴보면 과연 얼마나 균형감각을 갖추었는가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일부 글에는 국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인식》은 먼저 《해전사》의 역사관을 민족지상주의·민중혁명 필연론으로 규정, 이들 사관이 우리 역사 해석에 미친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의 해방 전후사 서술이 80년대 좌파민족주의적 인식과 연관이 있다면서 《해전사》 필자로 참여한 최장집·정해구 교수의 논문을 ‘좌파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쓰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책은 또 《해전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운동사라고 비판한 뒤 《재인식》은 이데올로기적 편향 없이 당시 사회를 실증적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편집위원들은 또 《해전사》가 일제시대와 친일과 문제를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의 이분법적 구분을 취한 데 반해 《재인식》은 이분법을 뛰어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면 탐구의 성과를 담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비판에 대해 《해전사》 집필진과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전사》 1권에 필자로 참여한 문학평론가 임현영씨는 “우리 현대사 연구가 황무지였던 20여년 전 진지하고 양심적인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조명한 게 《해전사》였다”면서 “학문사적인 의의가 큰 《해전사》

를 민중혁명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재인식》의 내용을 분석, 《해전사》 비판이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전사》를 출간한 도서출판 한길사도 발끈하고 있다. 한길사의 한 관계자는 “《해전사》에는 송건호, 염무웅, 유인호, 백기완, 김학준 씨 등 민족주의자들이 주요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해전사》를 이데올로기의 운동사로 규정한 《재인식》의 편집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길사는 《해전사》를 좌파로 매도하는 일부 학자들과 보수언론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해전사》에 모두 3편의 글을 실고 《해전사》 제6권 기획자이면서도 이번 《재인식》에 논문을 기고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해전사》를 일국사적 관점에서 저술하고, 좌파편향적이라는 《재인식》 일부 편집위원들의 지적을 강력 비판한다”며 “일부 우파성향의 연구자도 있지만 나를 비롯해 각 필자들의 입장은 모두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재인식》의 또다른 필자는 “이 책은 수십명의 학자가 연구해온 지적 산물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어떤 정파적 이해나 이데올로기를 표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전사》는 어떤 책... 민족주의 시각의 '재야 역사교과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첫권이 출간된 이후 89년까지 모두 6권으로 완간됐다. 80년대 지식인층의 '재야 역사교과서'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지금까지 모두 50여만권이 팔려나가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책은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미군정, 분단, 반민특위활동, 친일파, 농지개혁, 건국준비위원회 등 해방 전후의 주요 사건을 다루며 그동안 연

구 사각지대였던 해방 전후시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1권은 초판 직후 관금 조치를 당했으나 80년 들어 원고를 일부 삭제해 합법적으로 재출간됐다. 주요 필자는 언론인 송건호씨, 정치학자 진덕규·김학준씨, 경제학자 유인호·이종훈·박현채씨, 문학평론가 임헌영·염무웅씨 등이며 정치학자 최장집·정해구·박명림 교수 등 필자의 상당수는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 26.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 역사 다시 썼다

안석호

세계일보 2006년 2월 9일

### 보수진영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198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로 불린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이하 《해전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해 출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하 《재인식》)이 8일 출간됐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역사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해전사》가 진보세력의 역사관을 대변한다면 《재인식》은 보수 세력 역사관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특히 양 세력 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는 친일청산과 한국전쟁의 책임, 한·미 문제 등에 있어서 보수주의 목소리를 대변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인식》에는 최신 역사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 30편과 서울대 박지향 이영훈 교수 등 편집위원들의 대담 1편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해전사》가 편협하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전사》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

■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의 쟁점별 입장차

해방전후사의 인식		분량
6권(논문 38편)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 인 민족운동이다	조선어학회 활동
북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완벽했다	미군정의 적대정책 때문이다	일제 잔재 청산
지주제가 온존했고 영세농민만 만들어냈다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이 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실패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다	농지 개혁
		분단과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
		1950년대

그림 12:

인 민족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좌파적 역사 인식이 야기한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료를 바탕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총 2권으로, 1400쪽이 넘는 《재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그 후 1960년대까지 친일과 민족주의, 일제잔재 청산, 분단과 한국전쟁, 한미동맹 등 좌우익 논란의 핵심이 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인식》은 우선 일본 식민시대를 겪은 세대를 친일·반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데 반대한다. 당시 대중들의 심리상태가 일제에 종속된 데 대해 분노함과 동시에 처음 경험한 근대성에는 기쁨을 느끼는 등 매우 복잡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 친일파로 불리는 소설가 이광수는 일본의 힘을 빌려 민족 재생을 꾀한 민족주의자로 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 민족운동인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보급 등은 오히려 총독부의 필요에 맞아떨어진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전쟁과 분단의 책임에 있어서도 《해전사》는 이승만을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다 결국 민중의 심판을 받은 인물로 서술하지만, 《재인식》은 약소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려고 한미방위조약과 수입대체 산업화를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로 그렸다. 농지개혁은 《해전사》가 지주제를 온존시키고 영세농민만 만들었다고 깎아내린 데 반해, 《재인식》은 농지개혁 덕분에 남침한 북한군이 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재인식》의 역사 해석에 대한 학계 반응은 갈렸다. 《해전사》의 필자인 조동걸 한양대 명예교수는 “수궁할 부분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전사》와 《재인식》 모두에 글을 실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편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자들은 이념 성향을 논할 필요가 없는 전문 연구자”라며 “《해전사》를 좌파 편향으로 매도하고 역사인식을 문제삼는 편집위원의 지적은 수궁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10월 15일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첫 권이 출간됐으며, 이후 10년에 걸쳐 6권으로 완결됐다.

10·26사태 이후 판금됐다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해금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50여만부가 판매됐다.

이 책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방전후 한국 사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으며, 특히 친일문제 등 제도권 사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집중 조명해 대학가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5·17 이후 저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조사 받았으며 대학에서 쫓겨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 27.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편향된 역사접근’ 바로잡기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2월 9일

한국 사회, 특히 현 집권세력과 이른바 386세대의 현대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해방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으로 상징되는 ‘좌파적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현대사 해석의 균형추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책이 우여곡절 끝에 8일 출간됐다.

《해전사》식 역사인식의 좌편향성과 이 분법적 접근을 비판하며 한국현대사 이해의 중층성과 복합성, 역동성을 강조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약칭 재인식·책세상)이다.

서울대 박지향(朴枝香·서양사학), 이영훈(李榮薰·경제사), 연세대 김철(金哲·국문학), 성균관대 김일영(金一榮·정치외교학)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재인식》은 《해전사》가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내의 논문 28편과 편집위원의 대담을 정리했다.

박지향 교수는 서문에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노 대통령이 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는 많은 젊은 사람이 가슴 속에 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다 한 번씩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칭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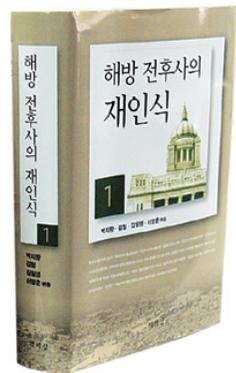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으로 보임)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조금이라도 교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인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삶과 광복 후 친일 청산 문제를 다룬 1권(15편의 논문·780쪽), 광복 이후 분단과 6·25전쟁의 책임 및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다룬 2권(13편의 논문과 편집위원 대담·696쪽)으로 이뤄져 있다.

필자 중에는 《해전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수정주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부인인 우정은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 《해전사》의 필자였던 이완범(李完範·정치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신형기(辛炯基·국문학) 연세대 교수도 있다.

《재인식》은 그 책의 내용 못지않게 기획과 출간과정에서 우리 지식인 사회가 이념과 비지성적인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시켜줬다.

이 책의 편집위원들은 처음부터 “《해전사》의 역사인식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색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는 글들만 엄선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그러나 필자 섭외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기고를 회피했다.

박지향 교수는 “준비 과정에서 외국에서 발표된 훌륭한 연구물을 실으려 했는데 거절당한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가 국내 반응과 분위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을 사실대로 탐구하는 연구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담에서 밝혔다.

최근엔 한 언론이 ‘역사 연구가 특정 이념이나 정책적 목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재인식 출간 취지를 무시한 채 ‘뉴라이트판 해전사’라고 보도해 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책이 인쇄돼 나올 때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대사에 관한 한 좌파적 역사관이 득세하며 성역처럼 굳어져 있는 지식인 사회의 굴절된 단면은 책 출판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이 책은 2004년 11월 본보가 그 출간 기획 소식을 처음 보도한 뒤 학계와 출판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당초 책을 내기로 했던 출판사로부터 두 번이나 보이콧을 당했다.

지난해 초 출판의사를 밝혔던 한 출판사는 기획과정에서 “정치색이 너무 뚜렷해지는 바람에 진보적 시각을 유지해온 우리 출판사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출판을 거부했다. 또 다른 출판사는 출판계약까지 해놓고는 책이 발행되기 보름 전에 돌연 이를 덮어버렸다. 일부 편집위원들의 반대로 책 출간을 포기한 또 다른 한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역사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출판계에서는 이들 출판사가 민족주의와 통일지상주의 성향이 강한 역사학 필진을 의식해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완범 교수“재인식 출간 정치적악용 말아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재인식)을 꼭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에 대한 공격과 비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전사》가 열어젖힌 지성사적 사건의 연장선에서 한 차원 높은 학문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해전사》와 《재인식》에 모두 필자로 참여한 이완범(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두 책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해전사》에 3편의 글을 기고해 임헌영(任軒永·국문학) 중앙대 교수와 함께 가장 많은 글을 기고한 학자다. 그는 《해전사》의 마지막 책인 6권 기획에도 참여했다.



그림 15: 이완범 교수

“저는 《해전사》가 처음 출간된 1979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영락없는 《해전사》세대라고 해야겠지요. 《해전사》를 대학 1학년 시절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동안 흐른 세월을 감안한다면 《해전사》는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할 책이 되지 않았느냐”며 《재인식》의 출간을 비판이 아니라 창조적 극복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재인식》의 출간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면서 “이 책의 출간을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잡아 가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이려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28.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다른점

김희경·전승훈

동아일보 2006년 2월 9일

《8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약칭 재인식)에 실린 논문들은 ‘탈(脫)민중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은 실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을 공통의 기조로 내세운다. 1979년부터 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의 역사해석이 민족·민주주의적 관점의 지향성이 뚜렷한 반면 《재인식》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해전사》와 《재인식》이 대비되는 주요 주제는 농지개혁, 분단과 6·25전쟁의 원인, 이승만 정권 평가 등이다. 《해전사》가 한국사의 질곡으로 지적해 온 대상들에 대해 《재인식》은 오히려 근대화를 이룩케 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까닭에 《해전사》와 《재인식》은 상호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제대로 된 독법(讀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친일과 일제 잔재

=《해전사》는 친일 군상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일제 잔재의 미청산을 역사 왜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했었다. 반면 《재인식》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이 친일·반일의 도식적인 구도로 쉽게 이분화되지 않을 만큼 복잡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한 예가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한글운동에 대한 평가다. 이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의 최후의 보루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재인식》에서 이해령(국문학) 성균관대 강사는 조선어학회가 추진하는 철자법 개정, 교과서 개정 등 조선어문 통일을 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뿐 일제 잔재를 남겨 놓았지만 북한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이 철저히 이뤄졌다는 진보학계의 시각에 대해 《재인식》에서 기무라 하쓰히코(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농업 부문의 생산책임제 강제수매제 등 일제가 구축한 전시 통제경제 체제가 해방 후 북한에서 거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승됐다”고 지적했다.

신형기(국문학) 연세대 교수는 “해방 후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혁명적 신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일제가 전시에 내 걸었던 ‘혁신적 국민’과 다를 바 없었다”며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동원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농지개혁

《해전사》는 미군정의 토지정책이 반봉건적 지주제를 온존시켰으며 이를 원형으로 한 정부 수립 이후의 농지개혁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 타협적 해소책에 불과했고 영세소농경영체제의 고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인식》에서 김일영(정치외교학)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지주가 산업자본가로 전신(轉身)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며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봉건적인 지주-소작인 관계의 해체를 꾀한다는 점에서 분명 개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6·25전쟁 때 점령정책으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려 했지만 이미 1950년 3~5월에 농지를 분배받은 남한의 농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분단과 6·25전쟁=《해전사》는 분단의 원인에 대해 북한이나 소련보다는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더 비중

해방전후사의 인식 (1979~1989년 발간)	◀VS▶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006년 발간)
1945~1953년	다른 시대	1930~1950년대
윤동사-이념사 강조 역사 진행의 과정에 초점	특징	일상사-비교사 강조 역사적 선택의 결과에 초점
민주주의, 민족주의, 수정주의, 이상주의	책에서 드러난 역사관	탈민족주의, 실증주의, 탈수정주의, 현실주의
천일 대 반일, 예국 대 배국, 수월과 필박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강함	일제강점기 친일문제	일제를 적으로 삼으면서도 모범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모순적 이중적 상황이 지배적이었음
북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철저한 반면 남한의 일제 청산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	남북의 일제 잔재 청산	북한은 일제의 친황제 파시즘과 전시 통제경제체제를 수정제 파시즘으로 계승, 남한은 일제의 전시경제체제를 허물고 자유시장경제로 이행
김구와 여운형의 좌우합작 노선이 옳았다는 입장	해방공간의 노선갈등	이승만의 단정노선이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봄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있다고 주장	분단의 책임	1945년 9월부터 이미 분단을 확정하고 남침을 지시한 스탈린과 이를 부채질한 김일성의 책임이 큼
북한의 농지개혁은 성공한 데 반해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고 봄	농지개혁	남한은 농지개혁으로 농업자본을 신장자본으로 전환시켰고, 자주제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육성했기에 6·25전쟁 때도 인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음
권력욕에 사로잡혀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한의 미국 종속화를 낚음	이승만 정권의 평가	독재를 했지만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한미동맹과 미국 원조를 끌어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노획한 마키아벨리스트였음

그림 16:

을 두었다.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보다 북한을  
오관하여 남침하도록 만들었다는 ‘함정설’ 또는 ‘제한전쟁설’ 등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재인식》에서 이정식(정치학)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는  
1945년 9월 20일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지시한 스탈린의 지령 등 새로 공개된 소련문서를 통해 6·25전쟁이  
미소(美蘇) 냉전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스탈린은 중소(中蘇)방위조약을 체결  
한 다음, 미국의 봉쇄선인 38선을 돌파하여 남한을 소련의 영향권으로

편입함으로써 미국의 국제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자 했다”며 “스탈린의 이러한 세계 전략을 부추긴 것은 김일성의 무력통일 의지였고, 여기에 중국의 참전 의지가 전달됨으로써 6·25전쟁이 실천에 옮겨졌다”고 말했다.

#### ▽ 이승만 정권 평가

《해전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분열과 분단에 앞장서고 남한의 미국 종속화를 낳은 친미주의자이며, 개인적 탐욕과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재인식》은 이 대통령이 확고한 반공, 반일주의자였고 북진통일과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목적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던 마키아벨리스트였다고 평가했다. 흔히 이승만의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계기로 알려진,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벌어졌던 ‘정치과동’과 ‘발취개헌’에 대해 김일영 교수는 “북진통일을 목표로 한 이승만이 미국의 전쟁 수행과 동아시아 정책을 놓고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의회 및 야당의 지도자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다툰 사건”으로 정치사적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대표적 수정주의 이론가인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의 부인인 우정은(정치학) 미시간대 교수는 《재인식》에서 “이승만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대(rent)’를 우려냈고 그렇게 얻어낸 자본을 강한 국가 유지를 위해 재투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2월 9일

1979년 제1권이 출간된 뒤 10년간 6권이 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은 1970년대까지 학계에서 외면해 온 1945~53년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본격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현대사를 외세에 의한 분단, 친일과 청산의 좌절, 민족 통일의 염원을 외면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등 오욕이 점철된 역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해전사》는 1980년대 대학가에서 ‘의식화 교육’의 필독 교재로 쓰이면서 386세대에게 큰 충격과 함께 현실 변혁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됐다. 학술논문을 편집한 책이었지만 1권이 40만 부 이상 팔렸다. 1권은 초판 출판 직후 판매금지 조치를 당해 원고 일부를 삭제한 뒤 1980년 신군부의 검열을 통과했다. 《해전사》 기획을 주도한 학자들 가운데는 강만길(姜萬吉)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2권), 최장집(崔章集)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4권),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5권) 등이 있다.

## 29. 뉴라이트판 《해전사》 나왔다

배영대

중앙일보 2006년 2월 9일

“2004년 초가을,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머리말에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하 《재인식》)이 8일 출간됐다. 《재인식》은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이하 《해전사》)을 비판할 필요성에 공감한 국내외 학자 28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내놓은 책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년) 	재 해방전후사의 인식(2006년) 
미 군정과 이승만	분단 책임 스탈린과 김일성
내전	한국전쟁 스탈린이 주도
미국 이익 대변, 분단 앞장	이승만 평가 대한민국 생존에 기여
북한은 성공, 남한은 실패	천일 전쟁 청산 남북 모두 일제 영향 지속

그림 17:

그들이 비판하고자 한 《해전사》는 1979년 발간된 진보·좌파적 시각의 역사 논문집이다. 《해전사》는 진보적 성향의 38세대들이 역사교과서처럼 중시했던 책이다.

《재인식》 발간에 앞장선 학자는 보수·우파 지식인 모임인 뉴라이트 네트워크 소속 이영훈(서울대), 김일영(성균관대) 교수와 탈민족주의 이론가인 박지향(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영훈 교수는 총론 격인 첫번째 논문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해전사》식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해전사》를 80년대 좌파 운동권과 주사파 탄생의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해전사》를 읽은 80년대 진보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수립된 남한 정권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김일성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 만든 북한 정권을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로 여겼다는 지적이다. 진보세력이 《해전사》식 역사인식에 따라 민주기지(북한)와 연대해 반혁명세력(남한)을 몰아내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꾀했다는 결론이다.

머리말을 쓴 박지향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학계의 부단한 연구로 《해전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수정돼 왔는데도 그런 사실이 일반 대중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재인식》출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재인식》은 《해전사》의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이 우리 역사 해석에 끼친 폐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립된 뉴레포트(신진보)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의 김형기(경북대 교수·노동경제학) 공동대표는 “과거 《해전사》에 어떤 편향이 있었다면 본격 논쟁을 통해 편향을 해소하며 보다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인식》도 특정 이념에 집착해 비판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편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 30.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이한우

조선일보 2006년 2월 9일

‘좌편향 현대史’ 균형 잡는다

1979년 첫 권이 나온 이래 6권까지 발간되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좌파 수정주의 사관을 학계와 일반인에게 확산시킨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 이 책의 ‘오류와 편향을 바로잡은’ 새 책이 8일 출간됐다.

서울대 박지향(서양사), 이영훈(경제사), 연세대 김철(국문학), 성균관대 김일영(정치학)교수 4인이 책임편집을 맡고 28명의 학자가 집필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총 2권·책세상·이하 《재인식》)이다. 20여년간 연구성과를 총결집한 이 역사서의 출간으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좌우 진영 간의 학술논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먼저 《해전사》는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론이라는 70년대 한국 좌파 지식인들의 코드에 맞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집대성한 책이다. 80년대 386 운동권들의 필독서였고 80년대 말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대표적인 현대사 교양서로 자리잡았다.

《재인식》의 1권은 일제시대와 북한 친일파 청산의 실상을 재조명한다. 일제하 조선인들의 삶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면서 독립운동가/친일파라는 이분법으로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다수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이라는 숙명에 좌절해야 했던 이종성이 대다수 주민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이다.

《재인식》은 현재 몇몇 좌파 진영에서 진행중인 ‘친일 청산’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다. 이영훈 교수는 “현재의 법에 따르면 30~40%가 넘는 고리대에 시달리던 조선 농민들에게 7~8%의 저리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했던 식산은행의 근무사실만으로도 친일파로 몰아

세운 법이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고 말한다.

‘북한은 친일 청산을 완벽하게 했다’는 세간의 믿음도 《해전사》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재인식》은 그것은 “만들어낸 역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북한의 경우 친일파라도 사회주의에 동조할 경우 문제삼지 않았고, 더불어 방조의 형식으로 지주 자본가 계급을 대거 남쪽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완벽한 친일 청산’이라는 허구를 창조해냈다는 것이다.

《해전사》에 비해 《재인식》이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50년대 이승만 시대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다. 편집 책임자인 박지향 교수조차 “나도 이승만 하면 부정선거와 4·19만을 떠올렸으나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달러를 끌어들이어 수입 대체화 산업을 일으켰으며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 국민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재인식》은 또 이광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친일파 청산문제, 분단의 책임문제, 농지개혁의 성공, 좌익노조인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실패 원인, 부산정치과동의 배경 등을 둘러싼 새로운 자료와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다양한 논쟁들을 발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재인식》은 단순히 좌편향 《해전사》에 대한 우파의 반격이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무엇보다 국내외 일류학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카터 에커트(하버드대 한국학), 기무라 미쓰히코(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 등 외국학자들을 비롯해 연세대 유명익 석좌교수(한국사), 이만갑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이정식 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정치학) 등 국내 원로학자들과 동국대 김낙년, 서울대 전상인, 충남대 차상철 교수 등 중진 학자는 물론이고, 《해전사》의 필

 <p>해전사(1979~1989)</p>	<h3>해전사와 재인식의 중요 차이점 정리</h3>	 <p>재인식(2006)</p>
6권 58편	분량	2권 31편
일국사적 관점	관점	비교사적 관점
민족 지상주의, 민족혁명 필연론, 좌편향 운동사	역사관	탈민족주의·탈이데올로기 실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
해방 직전부터 1950년대 까지 연대별 분류없이 6 권에 담음	연대별 분류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해 방 전사를 다룬 1권과 해방 후 사를 다룬 2군으로 분류
친일 대 반일/애국 대 매 국/수탈과 핍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일제시대 및 친일파 문제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 복잡 하고 다층적인 이면 탐구
북한의 일제 청산은 완 벽했다	일제 잔재 청산	남북한 모두 일제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이 해방 전후사를 지배 했다
이승만과 미군정에 분단 과 한국전쟁 책임이 있다	분단과 한국전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 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 것
지주제가 온존했고 영세 농민만 만들어냈다	농지개혁	농지 개혁의 성공 덕분에 남침 한 북한군이 기대했던 남한내 민중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분단에 앞장, 장기 집권, 민중의 심판	이승만 정권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 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 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	1950년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내부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18:

자였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정치학)와 연세대 신형기 교수(국문학), 그리고 커밍스의 부인인 우정은 교수(미국 미시간대 정치학)가 쓴 글까지 들어 있다.

한편,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편집진을 대표해 머리말에서 “1980년대 출간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서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인식》이 제목으로 보나, 성향으로 보나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근현대사를 해석하는 일종의 준거 구실을 하고 있는 《해전사》에 대한 파상공세의 일환임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찾아보기

【 ㄱ 】	【 ㅅ 】
경향신문 ..... 63	사설 ..... 37-39
국민일보 ..... 2, 52	서울신문 ..... 41
권재현 ..... 21, 70, 77	세계일보 ..... 67
김남중 ..... 52	【 ㅇ 】
김범수 ..... 9, 58	안석호 ..... 67
김영화 ..... 3	연합뉴스 ..... 29, 41, 45, 48
김태식 ..... 29, 45, 48	오창엽 ..... 33
김희경·전승훈 ..... 74	이광표 ..... 14, 19
【 ㄴ 】	이선민 ..... 12
남도영 ..... 2	이한우 ..... 80
【 ㄷ 】	【 ㅈ 】
데스크 ..... 45	조선일보 ..... 12, 38, 80
동아일보 4, 7, 14, 19, 21, 37, 70, 74, 77	중앙일보 ..... 26, 39, 45, 78
【 ㄹ 】	【 ㅊ 】
문화일보 ..... 31, 42	프로메테우스 ..... 33
민동용 ..... 7	【 ㅎ 】
【 ㅂ 】	한국일보 ..... 3, 9, 58, 63
박광희 ..... 63	홍진표 ..... 42
배영대 ..... 26, 78	

2월 9일자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임.  
특히 그 이후에 나온 기자들이 쓰지 ‘않은’ 글과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  
계속 업데이트 할 것!